2024년

신년 가정 예배

www.junahim.kr
02-2237-5009

주내힘교회

신년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 . . . . **인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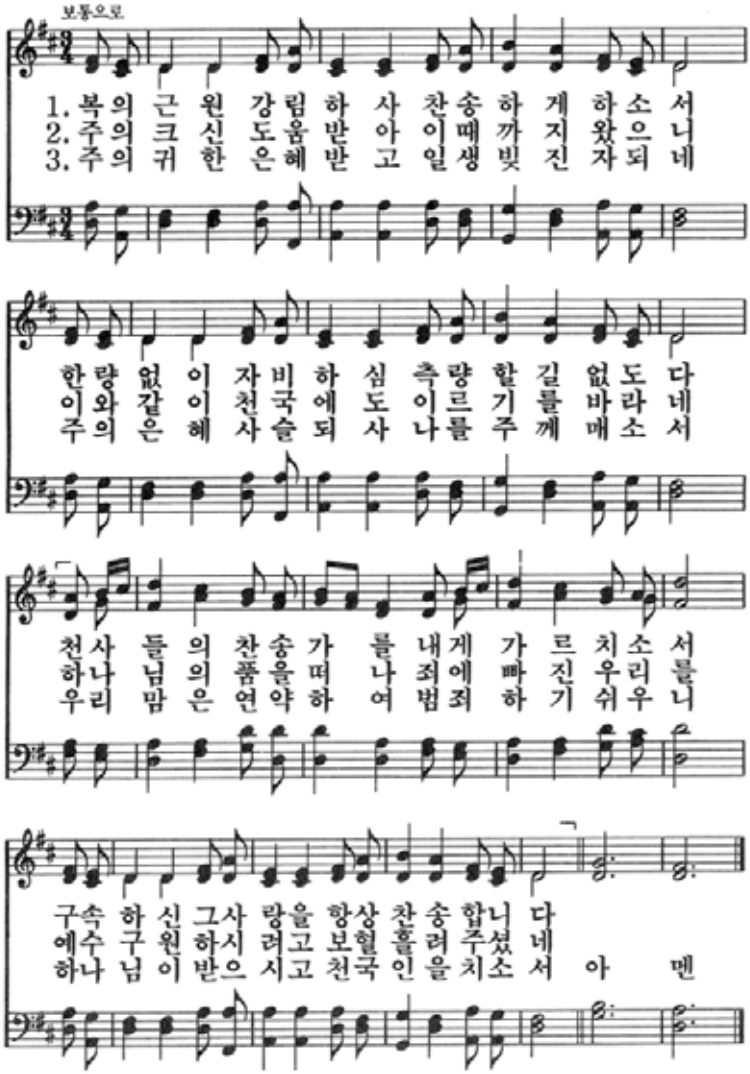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2024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고백 . . . . . **사도신경** . . . .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보통으로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와 같은 은혜 천국 도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 . . . .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 . . **창세기 12장 1-4절 (구약 14쪽)** . . . . **맡은이**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말씀나눔 . . . . . **‘믿음의 여정’** . . . . . **맡은이**

말씀나눔

믿음의 여정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가족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이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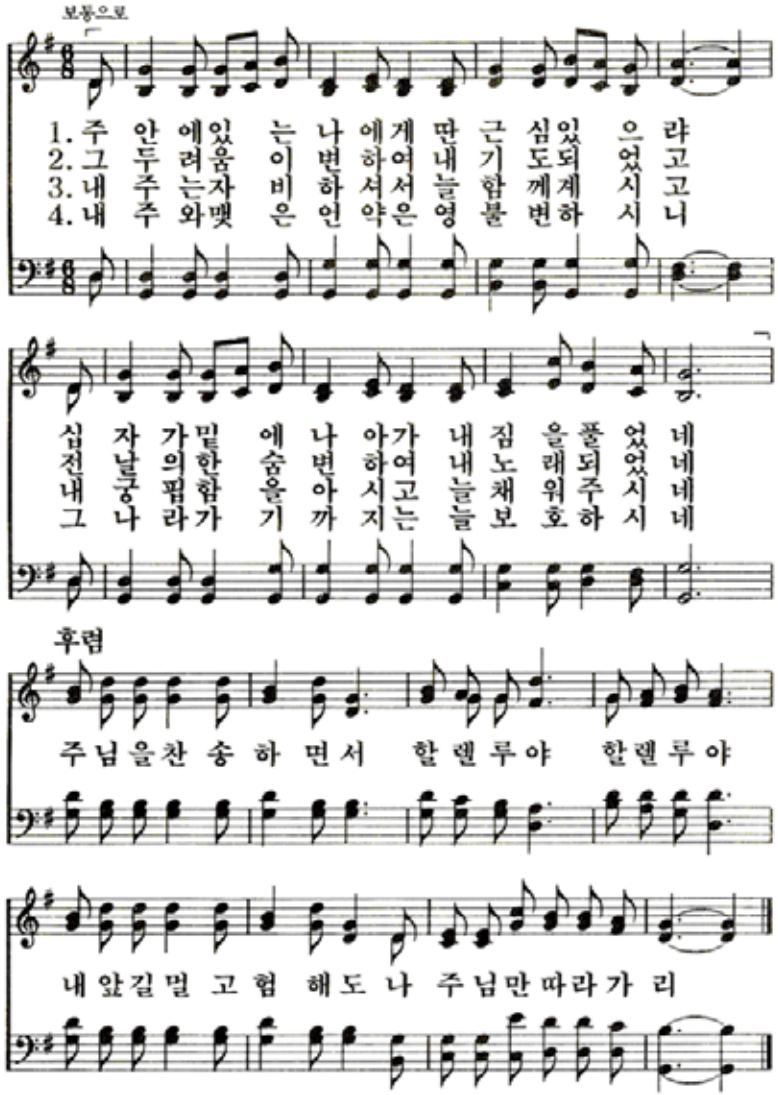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따라 즉각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다는 말에 믿음의 조상은 역시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 말씀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생전 처음 가 보는 낯선 길을 그냥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늘 그렇듯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믿음 없이 바라보면 막막하고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낯선 곳에 들어선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어른들이 거인 골리앗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고 이끌어 줄 사람은 엄마뿐이라는 것을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이며, 나를 보호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창세기 12:4).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믿음의 행동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해가 끝났을 때 감사할 열매가 가득 넘치고 나눌 은혜가 가득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455)



주기도 . . . .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